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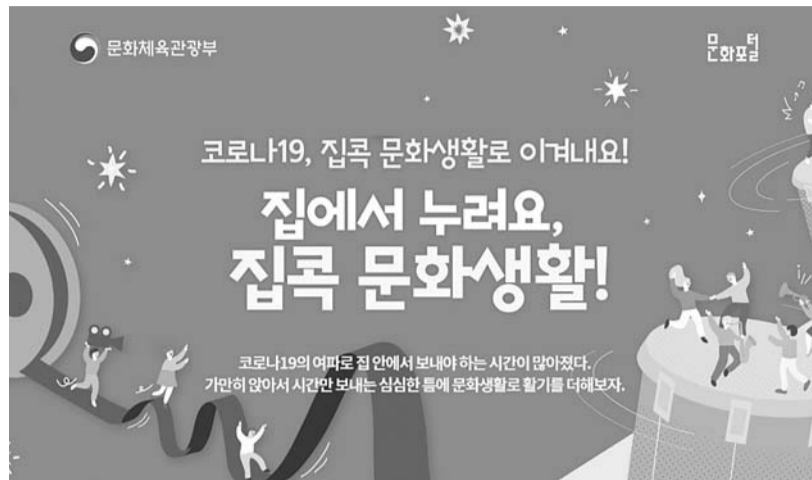
“공연·전시도 집에서” 추석 집콕 문화생활

광주시 축제형 공연·전시·문화강좌 등 온라인 불거리 풍성

광주시는 코로나19로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가정에서 추석연휴를 보낼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온라인 공연과 전시 등을 선보인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표 거리 공연축제인 프린지페스티벌과 가족단위 예술체험프로그램인 아트피크닉, 온라인 쇼를 즐기는 광주국제미술전람회(아트광주 20) 등 주여 공연·전시를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해 시민들께 선보이기로 했다.

우선 프린지페스티벌은 야외에서 공연을 즐기는 대면행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 '전환, 예술로 다가가기'라는 주제로 공연 영상을 제작해 온라인 축제로 진행한다.

지난 25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초록빛 놀이터와 함께하는 온택트 아트피크닉'은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문화예술체험 행사로 우리가족 아트스쿨, 동화책 콘서트, 힐링아트샵, 감상형 미디어아트 작품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안전하면서도 알차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 중 '우리가족 아트스쿨'은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아트박스' 체험꾸러미(무료)를 배송받아 집에서 가족이 함께 보고 만지며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10월 8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쇼로 진행되는 광주국제미술전람회(아트광주 20)는 15개국 89개 갤러리, 작가 500여 명의 작품 3000여 점을 전시하고, 광주미술의 역사와 역대 아트광주도 소개한다.

광주문화재단은 유튜브 채널 '광주문화재단TV'에 '슬기로운 집콕 생활 공연·전시' 코너를 마련해 다양한 영상을 올리고 있다.

10월 3일부터는 광주MBC와 공동으로 명품국악 콘텐츠 '2020풍류달빛공연'을 진행한다.

국악 신동 김태연, 가수 송가인의 어머니 진도셋김작 송순단 명인, 경기민요 소리꾼 이미리씨, 국악 실내악 그룹 '나뉜' 등이 공연에 나선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공연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0월 28일까지 온라인 공연 콘텐츠 '안방예술극장'을 주 3회(수, 목, 토) 문예회관 유튜브 채널 '각GAO 나오는 TV'를 통해 선보인다.

29일에는 문예회관 기획공연인 11시 음악산책 '정재형의 프롬나드', 10월 6일부터 8일까지 '그날, 오월 아리랑', 10월 31일에는 광주시립오페라단 제3회 수시공연 '박하사탕'이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립미술관의 '온라인 미술관'에서는 5·18 40주년 기념전인 '별이 된 사람들'과 산악사진전 '산 넘어 삶' 등, 역사민속박물관 홈페이지에서는 테마전 '영남, 광주를 움직이다',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는 강연, 인형극 등을 담은 '도서관 속 문화산책' 등의 콘텐츠가 제공된다.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코로나19로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있는 시민들이 문화예술 행사를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추석 연휴를 넉넉하게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동주 기자

뮤지컬 '광주' 내달 2일 온라인 공개

광주문화재단, 5·18 40주년 다음달 9일 서울 첫 공연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뮤지컬 '광주'가 다음달 9일 서울 첫 공연을 앞두고 온라인 공개된다.

광주문화재단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특별 제작된 뮤지컬 '광주'가 다음달 2일 온라인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작사 라이브 측은 작품의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해 쇼케이스 형식으로 공개한다.

쇼케이스에는 연출가 고선웅, 작곡가 최우정, 이성준 음악감독을 비롯해 박찬수 역의 민우혁·데이·서은광(비투비), 윤이건 역의 민영기·김찬호, 정화인 역의 장은아·정인지, 문수경 역의 정유지·이봄소리·최지혜 등 출연 배우들이 함께 한다.

온라인 공개에 이어 작품은 다음달 9일부터 11월 8일까지 서울 대학로 흥익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총 40회 공연된다.

이어 경기도 고양, 부산, 전주 공연을 한 뒤 12월 11~13일 광주 빛고를 시민문화관에서 공연이 예정돼 있다.

1980년 5월 18 광주 상황을 다룬 작품은 군부 쿠데타 세력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 시민을 폭도로 몰아 진압하고 정권 찬탈의 명분을 얻



으려는 과정을 담고 있다.

신규부는 유연비어를 퍼프리고 폭력시위를 조장하기 위해 특수부대(일명 편이대) 군인들을 투입하고 광주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총칼에 맞섰던 당시 상황이 담겨 있다.

작품은 대본 작업과 연출, 작곡 등 제작진의 창작과 배우 캐스팅을 마치고 지난 8월부터 본격 연습에 돌입했다.

작품은 지난 15일부터 티켓 예매가 시작된 가운데 티켓 오픈 당일 전체 공연 예매율 1위에 올랐다.

/이영욱 기자

창작뮤지컬 '백범' 내일부터 공연 개막

국립중앙박물관이 재개관함에 따라 개막을 연기했던 창작뮤지컬 '백범'이 29일부터 서울 용산구의 박물관 내 극장 용에서 관객을 찾는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뮤지컬 '백범'은 당초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상연 예정이었으나, 국립중앙박물관이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8월 15일부터 임시 휴관에 들어가면서 잠정 연기됐다.

지난 25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라 국립문화예술시설이 오는 28일부터 재개관하게 되면서 뮤지컬 '백범'도 무대에 오르게 됐다.

뮤지컬 '백범'은 29일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다음달 11일까지 열린다. 이번에 추가로 오픈되는 공연 회차(10월 6일~11일)에 대한 예매는 28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인터파크 티켓에서 가능하다.

양림동 마을 곳곳 '작은 미술관' 되다

'양림골목비엔날레' 오는 12월 31일 개최

카페·식당 등 지역 예술인 작품 소규모 전시

광주지역 근대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양림동에서 예술인과 상인, 주민이 함께 만드는 미술축제가 펼쳐진다.

양림미술관거리협회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림동 곳곳에서 2020양림골목비엔날레를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돼 있는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기획된 행사는 '거리두기'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제 전시는 '영업중'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방문하는 카페, 식당 등에 지역 예술인의 작품을 소규모로 전시한다. 전시에는 13명의 예술인들이 참여했다.

또 '기획전시 임대전'은 마을 내 빈 점포 4곳에 청년 예술인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공간을 활용한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행사 기간 중 양림동 내의 사립 미술관과 작가공간도 방문할 수 있으며 1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참여점포 쿠폰북도 제작 배포된다.

행사 개막식은 25일 오후 6시 '10년후그라운드'에서 펼쳐지며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의 골목콘서트' 등이 온라인 생중계된다.

행사는 언택트시즌과 컨택트 시즌으로 구분해 12월 31일까지는 대면형 행사를 최소화 해 운영하며 내년 2월 시작되는 컨택트 시즌에 맞춰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양림미술관거리협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양림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한동주 기자

기사제보 062)363-8800
호남매일 디지털신문

'광주 미디어아트 미래' 정책포럼

내달 7일 온라인 중계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의 미래를 논의하는 포럼이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와 AI'를 주제로 열리는 정책포럼을 다음달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생중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유네스코 본부 데니스 벡스 UCCN 창의국장과의 해외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관계자, 미디어 아티스트, 공학자 등이 모여 인공지능을 적용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의 미래를 모색한다.

유네스코 본부 UCCN 네트워크 데니스 벡스 창의국장과 광주과학기술원 인공지능대학원 김종원 원장이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와 AI'를 주제로 기조발제한다.

이어 1부에서 '미디어아트와 AI'라는 주제로 어영정 연세대학교 응


용정보학과 교수와 캐나다 토론토의 데이비드 로크비 뉴미디어 아티스트, 슬로바키아 코시체의 미셸 흐라드키 창조산업국장, 마리아 비르치코바 MATSCO 회사 CEO 겸 공동창업자가 주제 발제한다.

2부에서는 '광주 미디어아트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정엽 흥익대 영상·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교수와 장민한 조선대 교수, 강신겸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미국 토라 오레 가르드오스틴 경제개발부 문화예술과장이 주제 발제한다.

3부에서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와 AI, 예술 그리고 관광'을 주제로 종합토론이 펼쳐진다.

이번 포럼은 광주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역량을 응집할 수 있는 중요한 도시 브랜드 전략으로 삼아 인공지능을 미디어아트 분야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예술, 문화·관광분야에서 미디어아트의 의미는 무엇인지 등을 모색한다.

/이영욱 기자



전국 3만6천명 여성 최고의 직업

아모레 카운셀러

※ 문의만 하여도 선물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여성 화장품 판매 1위

대한민국 기초 화장품 1위 셀화수

대한민국 색조 화장품 1위 헤라

제약에서 만든 건강식품

1. 여성으로 가장 잘 할수 있고 가장 쉬운 사업입니다. 판매와 재판매가 손쉽고 고객과 본인이 함께 이해지는 일석이조!!
2.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브랜드 입니다. 설명이 필요없이 판매가 쉬운 대한민국 명품 화장품 입니다.
3. 기본수당 + 영업판매수당 + 각종 판촉지원 + 교육지원 + 해외여행 기회..... 등

아모레 신안특약점 수퍼마스터 송광자

010-3634-5083

062-522-2352 / 2353